

“시주 은혜 갚는 길은 해외구호”

그대는 자비보살

성관 스님 로터스월드 이사장

무위자연으로 실천한 ‘자비’

자비(慈悲),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란 의미다.

그 뜻을 오롯이 실천해 온 이가 있다. 2002년 창단부터 지금까지 사단법인 로터스월드를 이끌고 있는 이사장 성관 스님이다. 불교계 대표 국제개발구호NGO 로터스월드는 2004년 법인으로서 등록됐지만, 2년 전인 2002년 이미 캄보디아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그 점을 감안하면 로터스월드 역사가 내년으로 꼬박 15년을 맞는다.

로터스월드는 불교계 뿐 아니라 국내의 대표적인 캄보디아 국제NGO로 꼽힌다. 2006년 씨엠립에 아동센터를 설립하고 단발성 구호사업이 아닌 체계 · 지속적인 후원을 실시한 것이 가장 큰 밑거름일 터. 현재 아동센터는 국내 국제구호NGO가 캄보디아서 구호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교역할을 할 만큼 성장했다. 실제로 불교계에선 로터스월드를 롤모델(role model)로 삼아 국제구호활동을 펼치려는 단체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로터스월드가 국제구호NGO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던 것은 “아픈 사람을 보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비를 무위자연으로 실천해 온 성관 스님의 원력 덕분이 아니었을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월 5일 오후. 제20회 만해대상 평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을 만나기 위해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보현선원을 찾았다.

성관 스님이 구호사업에 뛰어든 것은 1996년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이 계기였다. 당시 수원포교당(현재 수원사) 주지를 맡고 있던 스님은 막중한 책임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4명의 도반들과 함께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했다.

“부푼 마음으로 공항에 내렸는데 그야말로 ‘폐허’와 다름없었어요.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잔혹한 참상이 그대로 서려있었습니다. 거리엔 ‘1달러’를 외치며 구걸하는 어린 아이들로 넘쳐났고, 얼마나 굶었는지 뱃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빠짝 말라있었어요. 전쟁에서 다리를 잃은 사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후 참혹했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를 “남은 생 동안 살아갈 방향을 찾은 순간이었다”고 회상하는 스님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마음에 품은 서원이 얼마나 컸는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듯 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노후엔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해 살겠다. 내 갈 길은 정해졌다’고 공언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허풍으로 들었는지 웃기만 했지요. 하지만 내가 가야할 길이 정해졌단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평화로워졌습니다. 시주의 은혜를 갚는 길은 그 방법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스님은 ‘노후 계획’이라 말했지만 그 서원이 얼마나 확고하고 간절했을까, 머지않아 기회가 찾아왔다. 6년 후인 2002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2대 의장을 맡게 된 것이다. 성관 스님이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제3세계에 대한 구호활동을 선창하자 회원 스님들이 모두 동의하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아동센터 건립을 첫 목표로 삼고 방법을 찾아 나섰지만 예산 편성, 인력 확보, 부지 선정 등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좋은 일은 함께해야한다며 신도들의 후원을 독려하자는 여론도 있었지요. 하지만 단호하게 ‘No!’라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역량만큼만 시작해 점차 기반을 다져나가야 지속적인 구호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튼튼해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이죠.”

흔히 ‘나눔은 함께하면 배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 함께할 것을 마다한

> 1996년 도반들과 캄보디아 방문
> 전쟁 후 참상에 안타까움 느껴
> “어린이들 위해 살겠다” 강한 발원
> 2002년 로터스월드 창단 활동

스님의 일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발적으로 발심했을 때 진중하고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초창기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지나치게 극화시켜 후원 동기를 자극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적인 연민심으로 후원에 동참할 순 있지만 그러한 마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최악의 경우엔 모든 후원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스님의 이러한 뜻에 따라 2006년 캄보디아 로터스월드 아동센터 건립 예산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서 3억, 나머지 전액은 성관 스님의 자비로 마련됐다고 한다.

강직한 기조는 오늘날의 로터스월드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몇몇 불교계 국제개발구호NGO가 외부 후원에 크게 의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겪는 동안에도 흔들림 없는 기반을 유지해왔다. 로터스월드란 그 이름에 걸맞게 깊고도 썩지 않는 연꽃 뿌리를 내린 것이다.

“모든 것은 ‘교육’서 시작된다”

캄보디아 아동들에 대한 성관 스님의 애착은 남다르다. 아이들을 ‘깊은 인연’이라 일컬으며 추억담을 얘기하는 스님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환희로웠다.

“아이들과 소풍도 가고, 함께 놀이도 하지만 센터에 갈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하는 일이 있어요. 전체 아이들을 데리고 근사한 뷔페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하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뷔페를 가자’하면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어요. 식당에 가면 어른보다도 훨씬 많이 먹는데 올챙이처럼 빵빵한 배를 보면 귀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그런 아이들 모습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려 돌아서면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었다는 성관 스님. 당시 여러 종단 업무를 맡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아이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선 만 리길도 마다치 않았다. 그렇게 캄보디아를 다녀온 횟수만 지금까지 60여 차례다.

아이들에 대한 성관 스님의 크나큰 사랑 때문일까. 로터스월드의 대표사업은 단연 ‘교육’이다. 캄보디아 씨엠립 외곽에 위치한 캄보디아 아동센터는 2006년 설립돼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현재 50여명이 아동센터서 지내고 있다. 누적 통계 총 100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기숙사 · 사원 · 다목적센터 · 게스트하우스 · 교실 등을 갖춘 아동센터에선 방과후교실과 정서 및 예체능 교육 등을 실시하며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 도서관 · 영화 상영관 · 컴퓨터 교실도 개방하며 지역사회 문화공간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처럼 로터스월드가 창립부터 교육사업에 중점을 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성관 스님의 남다른 애착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모든 것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스님의 신념 때문이다.

“교육은 인간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배우든, 스스로 깨닫든 상관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쉼 없이 정진하라’ 말씀하셨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관하는 사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소통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엔 단절될 것입니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관 스님은 아동센터가 나가야 할 미래 교육 방향도 이미 설계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적인 학업 수학이 아닌 현지 특성을 고려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둔다. 현재 2011년 설립된 ‘로터스희망이용센터’를 통해 아동들에게 미용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및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확

성관 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해 동대학 교육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 문화사회부장 · 문화부장 · 호법부장을 비롯해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수원사 주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지난 5월 창건한 보현선원 회주, 조계종 여래마을 회주, 청수사 회주,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세상 대표이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8월 12일 개최된 제20회 만해대상 시상식서 평화대상을 수상했다.

문화재기능인 등록 제 5772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인터넷 다음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을 검색하시면
보리수 공방으로 연결되고, 보리수 공방의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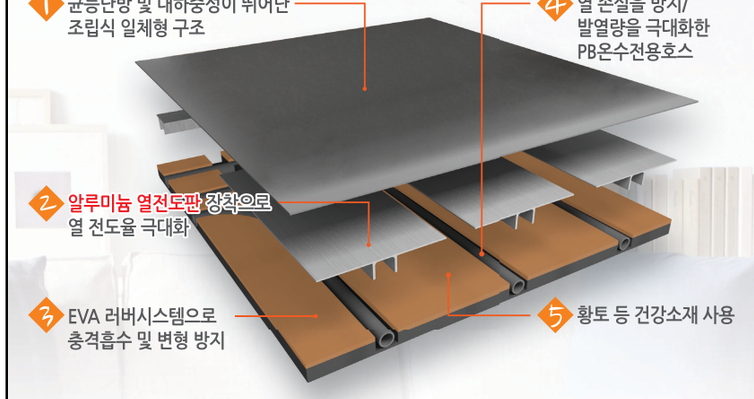
뜨시고 따시고 스님, 불자님 이제 연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조달청등록기업 MBC, KBS 방송광고제품

난방비 50% 이상 절감 / 반영구적 수명
내하중성 최고 / 전자파 ZERO



태경에너지 홍보이사 / 배우 이동준



1 균등난방 및 내하중성이 뛰어난 조립식 일체형 구조
2 알루미늄 열전도판 장착으로 열 전도율 극대화
3 EVA 러버시스템으로 충격흡수 및 변형 방지
4 열 손실을 방지/발열량을 극대화한 PB온수전용호스
5 황토 등 건강소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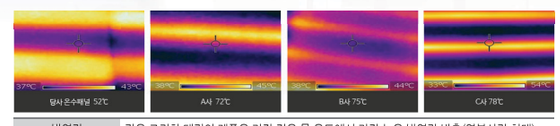
01 황토발포단열 EVA 사용
02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56%,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03 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열식 온수난방패널 (특허 10-1386923호)
04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05 난방비 50% 이상 절감 (45℃ 이하의 저온수 난방 제품)

열과 하중에 강한 태경에너지 온수난방패널 핵심기술

열을 넓게 퍼트리는 3면 알루미늄

발열량을 높이는 PB온수전용호스

원적외선 방출 및 항균효과가 있는 황토EVA



발열량	같은 조건하 태경의 제품은 가장 적은 물 온도에서 가장 높은 발열량 방출(열복사량 최대)
열전도율	알루미늄이 장착된 태경의 제품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가장 높은 열 전도율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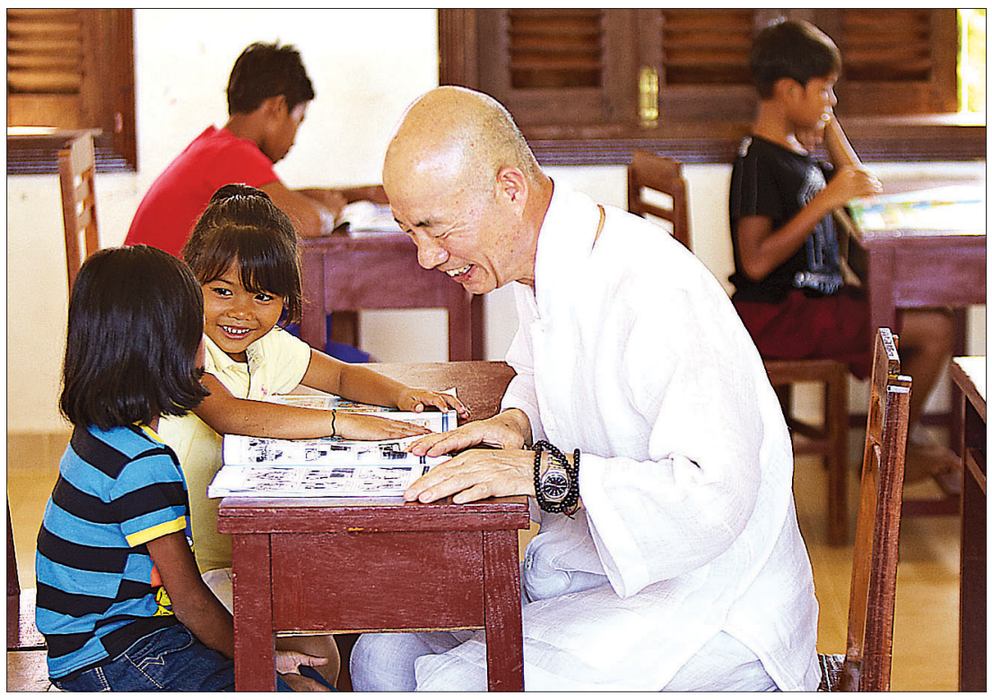
금새 따뜻해지는 놀라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제품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태경에너지 TAEKYUNG 온수온돌판넬 전문기업

대리점 및 제품구입문의 1833-8404 www.태경에너지.kr

가스, 전기, 기름보일러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

…캄보디아 아동 교육, 개안 등 지원



성관 스님은 2006년 아동센터 설립 이후 지금까지 60여 차례 방문하며 아이들과 추억을 쌓고 있다.



성관 스님이 캄보디아 로터스월드 아동센터서 아이들 방과후교실에 함께하고 있다.



캄보디아 '앙두엉 국립안과병원' 준공식에 참여한 성관 스님(사진 왼쪽서 두 번째).

대, 컴퓨터 및 스마트폰 수리 · 자동차 정비 · 목공 · 제빵 등 기술교육도 실시한단 방침이다.

"지역사회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인재들을 찾아내 지도교사로 채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엔 고용 기회가 창출되고, 아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학을 나와도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이 힘든 현지 사정을 고려해 기술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2006년 씨엠립에 아동센터 건립

"교육,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 없어"

아이들 사랑 남달라 60차례 방문

지역사회 · 기술 중심 교육 계획

1500명에게 '새 눈'을 선물하다

로터스월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다. 캄보디아 주민들에 대한 '개안수술 지원사업'이다. 2007년부터 건양대 김안과병원과 협력해 아동센터 내에 안과병원을 설립하고, 연간 3회 무료 진료 및 개안수술을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는 자외선이 강해 유독 백내장과 익상편 환자가 많은데, 이곳서 개안수술을 받은 사람만 1500명에 달한다.

평생을 흐린 눈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새 세상을 선물하는 이 엄청난 일이 치밀한 계획으로 시작됐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인연서 비롯됐다.

"어느 날 김안과병원이 해외의료봉사를 위해 우리 캄보디아 아동센터를 찾아왔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성주(당시 병원장) · 김용란 부부와 함께 여러 의사들이 왔어요. 원래 스리랑카를 가려고 했는데 내전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필리핀으로 가려니 현지 국제구호NGO와 전화가 닿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린 것이 캄보디아였어요."

독실한 불자였던 김성주 · 김용란 부부는 그 인연을 계기로 지금까지 매년 3차례 20~30명의 대규모 봉사단을 꾸려 로터스월드 아동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역시 불자였던 김안과병원 설립자 김희수 건양대 총장의 후원은 순풍에 돛을 달았다.

초창기엔 하루 5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과 진료를 위해 몰려들었다. '심봉사 눈떴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자 씨엠립 밖 다른 지역민들까지 모여들었다. 캄보디아 주정부에서도 사람을 보내 로터스월드와 김안과병원의 '합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개안 수술 지원 사업 시작

2007년부터 김안과 병원과 협력

연간 3회 무료진료 및 개안 수술

수혜 환자 1500여명… 의료계에 큰 획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병이란 인식을 못하고 샤머니즘적 사고로 '우환'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앞이 보이게 해 준다니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딱 뜨니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김희수 총장 내외를 초청해 '우리나라에 안과병원을 설립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에 코이카(KOICA)와 김안과병원이 힘을 합쳐 캄보디아에 '앙두엉 국립안과병원' 문을 열었다. 로터스월드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캄보디아 의료계에 큰 획을 그은 것이다.

그렇다면 로터스월드의 국내구호활동 계획은 어떨까? 로터스월드의 국제개발구호 활동은 15년 간 기반을 튼튼히 다져온 반면, 국내 활동은 비교적 미비한 편이었다.

'국내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왜 해외까지 가서 돕느냐'며 국제개발구호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터라, 성관 스님께 국내활동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쭸다. 이에 스님은 "없다"고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부터 도와야 한다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세계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절대 지금처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 동남아권 국가들은 우리에게 쌀을 보내며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세계는 함께 살아가야하는 생명공동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로터스월드가 초심을 잃지 않고 15년 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던 힘은 성관 스님의 뚜렷한 운영철학과 기백이었다. 성관 스님은 "자기 공부가 전제되지 않는 구호활동은 생명력이 없다"며 매일 새벽마다 기도정진에 임하며 수행자로서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캄보디아 아동센터 아이들과 스님께서 회주로 계신 보현선원 신도들을 위해 매일 축원하는 발원문을 단숨에 읊을 정도다.

성관 스님은 종교인, 정치인,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보편적 가치에 충실할 때 진정한 '로터스월드'가 될 것이라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선 내가 해야 할 근원적 역할과 보편적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할 때 세상은 진정한 정토세계가 될 것입니다."

글=박아름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니까야서 길을 묻다 사띠(念) ⑤

매순간 인지할 때 '앎' 얻는다

〈법구경〉 제293 게송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러나 잘 행하여 몸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끈기 있게 해나가는 이들에게는 '주의 깊음'(sati)과 '분명한 앎'(sampajāna)의 이익으로 번뇌들은 사라져 간다.

여기에는 사띠가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몸에 대해 주의를 기울임'이다. 이는 사념처(四念處)의 첫 번째 내용인 신념처(身念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경문의 끝부분에 사띠가 다시 등장하는데, 두 번째는 '분명한 앎'(正知)과 짝을 이루고 있다. 북전 아함경에서 정념정지(正念正知)라는 술어로 등장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는 나아갈 때에 물러날 때에 올바로 알아차리고, 관찰에 대해 관찰된 것에 대해 올바로 알아차리는 자로 머문다. 굽히고 폈을 때에 올바로 알아차리는 자로 머물고, 대의(大衣), 발우(鉢盂), 법의(法衣)의 지님에서,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맛보았을 때에, 대소변 보는 일에서, 가고 머무르고 앉았을 때에, 잠들거나 깨어 있을 때에, 말하거나 침묵했을 때에 올바로 알아차리는 자로 머문다.

〈맛지마 니까야〉 제94 '고타무카'경에 나오는 이 구절에 따르면 '인지'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일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몸의 움직임을 순간순간 그대로 인지하는 연습을 통해 '분명한 앎'(正知)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인지/알아차림/앎'을 이끌어내는 토대는 몸의 움직임을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주의력'이니 바로 사띠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주의력 대신 '깨어있음, 마음챙김, 마음지킴, 주의집중, 지켜 섬' 등의 번역어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번역어를 택하든 '일상에서 생겨나는 갖가지 신체의 움직임을 분명하게 인지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띠'가 발생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 나은영

그런데 니까야에는 정념정지에 해당하는 구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주의 깊음'과 '분명한 앎'이 짝을 이루고 있지, 팔정도의 하나로서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주의 깊음'(samm¤¥sati)이 '분명한 앎'과 짝이 되는 것이 아님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정념'이란 '사띠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염/정지'의 짝은 사띠에 내재된 많은 의미 전체를 온전하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열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계열이란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간파해내는 '인지'에 초점이 있다. 즉, '염/정지'의 결합은 '염과 정지' 또는 '염에 의한 정지'라는 의미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이때의 '사띠'는 '성취된 또는 완성된' 수행으로써의 위상이라기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사띠는 사띠를 조건으로 하여 자신의 호흡과정을 비롯해 몸의 온갖 움직임을 미세한 양상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이 수행의 중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사띠의 의미는 '잊지 않기'보다는 '주의 기울이기' 또는 '일으킨 주의력의 지속' 정도가 '분명한 인지'와 짝을 이루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니까야에서 '주의 깊음'과 '분명한 앎'이 짝을 이루고 있지, 팔정도의 하나로서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주의 깊음'(samm¤¥sati)이 '분명한 앎'과 짝이 되는 것이 아님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정념'이란 '사띠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염/정지'의 짝은 사띠에 내재된 많은 의미 전체를 온전하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열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계열이란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간파해내는 '인지'에 초점이 있다. 즉, '염/정지'의 결합은 '염과 정지' 또는 '염에 의한 정지'라는 의미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이때의 '사띠'는 '성취된 또는 완성된' 수행으로써의 위상이라기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사띠는 사띠를 조건으로 하여 자신의 호흡과정을 비롯해 몸의 온갖 움직임을 미세한 양상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이 수행의 중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사띠의 의미는 '잊지 않기'보다는 '주의 기울이기' 또는 '일으킨 주의력의 지속' 정도가 '분명한 인지'와 짝을 이루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즉, '주의력'을 발휘하여 '몸의 움직임'을 그대로 간파함으로써 인지능력을 닦아나가는 길은 곧바로 '주의력' 향상의 길과 만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주의력/알아차림'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 닦음의 길은 남방불교에서 계승해온 하나의 수행법인데, '네 가지 대상에 대해 주의 깊음의 발휘와 지속'(四念處)이라는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안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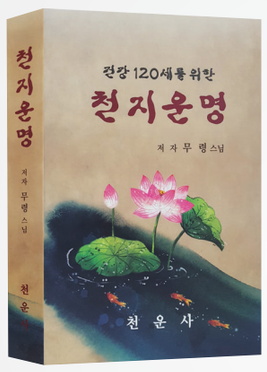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천지운명
건강 120세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상담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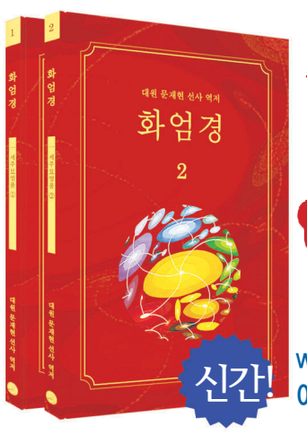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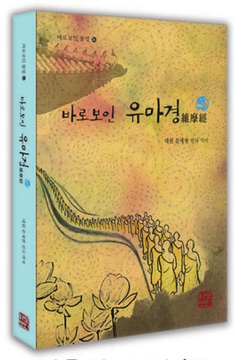
H·P 010-4496-6060 / 팩스 043)881-1359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 77번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화엄경1,2
화엄경 전자책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공개!!
www.zenparadise.com 에 다운로드 방법 공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였다. 이러한 안목으로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하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